

지역 매 아 리

금구면주민자치위원회

KTX김제역 정차 촉구 결의

김제시 금구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승일)가 15일 자치위원과 지역주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KTX김제역 정차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여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날 결의대회는 2015년 4월 서울 용산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호남고속철 개통이후 KTX의 김제역 정차가 중단돼 철도교통 오지로 전락한 김제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전북 서부지역 50만 도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김제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것임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다.

최승일 위원장은 "KTX 김제역 정차 실현을 위하여 우리 주민들이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역할을 결집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재영 금구면장은 "KTX 김제역 정차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에 서로 인식을 같이하고 모든 역할을 다하자"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서울시 청소년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등 방문

서울시 청소년들이 완주를 방문해 완주의 문화를 체험했다.

15일 완주군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서울시 청소년들이 완주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완주군과 서울시는 지난 2012년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매해 청소년을 모집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들은 완주에서 농촌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고, 완주군 청소년들은 서울시를 방문해 도시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갖고 있다.

서울 청소년들은 완주의 대표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 놀도피어, 고산자연휴양림, 힐즈타운을 찾았다.

이곳에서 실내암벽등반, 투어바이크 등 다채로운 체험과 로컬푸드를 경험하고 소양인덕, 대승한지, 구이안덕, 용진두억, 경천오복마을 등 체험마을도 찾아 마을주민들이 준비한 식사와 숙박, 체험을 통해 농촌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영선 문화관광과장은 "문화교류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완주군에 더욱 관심을 갖고 농촌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는 기회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행락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완주군, 휴가철 맞아 내달까지 운영

무단투기·불법취사 단속, 교육 홍보 병행

완주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행락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완주군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행락지 쓰레기 관리대책 기간을 운영해 환경오염행위 단속과 교육과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운주, 동상계곡을 비롯한 피서객들이 주로 찾는 6개 면지역 자연발생유원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취사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

속한다.

또한,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점검 및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환경위생과 직원 18여명으로 기동상환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해 차량을 이용한 행락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이장회의와 상인간담회, 유원지주변 현수막 거치와 마을방송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주민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현재 완주군은 행락지 주변에 집중

되는 쓰레기 적체에 대비해 읍면 쓰레기 수거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거점 2개소를 증설해 운영하고 있다.

행락객들의 위생안전을 위해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청결 및 관리실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행락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의식이 선행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실천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청정완주 실현에 동참하도록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삼례·용진 도시재생 박차

주민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계획안 완성"

완주군이 '삼례읍·용진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삼례읍·용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개최했다.

15일 완주군은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2일 '삼례읍·용진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도시재생 전문가를 비롯한 군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성화계획 개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비전 및 목표에 대해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각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



완주군은 지난 12일 '삼례읍·용진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군은 공청회를 토대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 할 예정이다.

최종식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계획안을 완성할 것이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박차를 가해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며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일자리정보 알림이 시스템 서비스개시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센터장 강정완, 이하 주간보호센터)는 센터 이용장애인 지역사회 적응훈련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소설을 배경으로 '수탈당한 땅과 뿌리박힌 민초들이 민족의 수난과 투쟁을 대변하는 소설 '아리랑'의 배경을 재현한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에 소재한 아리랑문화마을에서 최근 센터 이용장애인 및 지도교사, 사회복지부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

운데 진행했다.

일제 강점기의 의상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문화체험, 느린 편지쓰기 체험, 아궁이체험, 주리틀기체험, 육사체험, 곤장체험, 인력거체험 등 너무나 흥미로운 체험을 경험해보았다.

그리고 실제 역의 풍경을 재현한 아열민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는 동상을 보며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서 날 것이며,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서 살 것

입니까?"의 글을 어설픈 한글 자 한글 자 힘들게 읽는 이용 장애인들에게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배움의 장이 되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강정완 센터장은 "아리랑문화마을을 방문하여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는 15일 오전 경찰서 2층 우소홀에서 제72대 임종명 김제경찰서장 취임식 을 개최했다.

"신뢰받는 경찰' 되도록 노력할 것"

임종명 신임 김제경찰서장 취임식 개최

김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경찰서 2층 우소홀에서 각 과·계장 및 지·파출소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대 임종명 김제경찰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임종명 경찰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김제에서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즐겁고 활기찬 '신명나는 김제경찰', 어떠한 현장에서도 당당하고 '믿음직한 김제경찰', 주민

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김제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서장은 전주 출신으로 1990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군산서 생활안전과장, 전북청 경비경호계장, 정보화장비과장 등을 역임 후 김제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지역사회적응훈련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센터장 강정완, 이하 주간보호센터)는 센터 이용장애인 지역사회 적응훈련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소설을 배경으로 '수탈당한 땅과 뿌리박힌 민초들이 민족의 수난과 투쟁을 대변하는 소설 '아리랑'의 배경을 재현한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에 소재한 아리랑문화마을에서 최근 센터 이용장애인 및 지도교사, 사회복지부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일제 강점기의 의상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문화체험, 느린 편지쓰기 체험, 아궁이체험, 주리틀기체험, 육사 체험, 곤장체험, 인력거체험 등 너무나 흥미로운 체험을 경험해보았다.

그리고 실제 역의 풍경을 재현한 아열민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는 동상을 보며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서 날 것이며,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서 살 것입니까?"의 글을 어설픈 한글 자 한글 자 힘들게 읽는 이용장애인들에게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배움의 장이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